

학장 인사말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구성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어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하면서도 언제쯤이나 노 마스크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 속에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풍요와 여유의 계절에 명예 교수님, 동료 교수님, 선후배 동문, 학생과 교직원 선생님 모두 별 탈 없이 잘 지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호대학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캠퍼스 이전에 대한 소식일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8월 건축 허가 및 설계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 특히 자율성, 혁신 그리고 융복합이라는 화두는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간호대학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는 수년 이내 관악으로의 메인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관악 캠퍼스의 문화와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본연의 교육, 연구와 봉사에 임해왔지만, 향후 관악으로 이전하였을 때 어떻게 지금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악의 구성원들에게 간호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년 학장 임기의 마지막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16대 간호대학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경험들은 제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덕에 학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주어진 일정에서 간호대학의 새로운 리더인 학장 선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제게 남겨진 마지막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내년도 새 임기가 시작될 총장을 선출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은 앞으로 서울대학교 4년을 책임지는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기 위한 간호대학 나름의 세심한 준비와 선제적 대처 또한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간호대학 발전의 원동력은 어려움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한마음으로 지지해주셨던 여러분입니다. 간호대학이 품은 큰 뜻이 비상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 김혜원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허익수 교수	- 승진 : 조교수 → 부교수(2022. 9. 1.자)
김혜원 교수	- 한국 시그마학회 감사 선출(2022. 8.자)
최희승 교수	- 한국간호과학회, JKA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부편집위원장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임원

강자현 교수	- 대한민국간호한림원(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총무이사
김현의 교수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디지털의료분야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이사
정재원 교수	- 한국간호산업학회 감사(2022.8. 23.자)

간호대학 소식 02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 학력

- 1980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84 미네소타대학교 성인간호학 석사
- 1986 미네소타대학교 보건통계/보건정보학 석사
- 1987 미네소타대학교 보건통계학/보건정보학 박사

○ 주요 경력

- 1988-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992-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0-현재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협동과정 교수
- 2013-201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 2017-2019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 2019-현재 서울대학교 이사

○ 학회 및 협회 활동

- 2014-2015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회장
- 2012-2016 세계의료간호정보학회 회장
(President of AMIA-NI)
- 2015-2017 세계의료정보학회 회장(President of IMIA)
- 2020-2021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 2021-2023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
- 2011-현재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FAAN)
- 2017-현재 미국 의료정보학 학술원 회원(FACMI)
- 2017-현재 세계의료정보학회 학술원 회원(FIAHSI)
- 2018-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원

○ 인터뷰 질문

1. 교수님께서 어떻게 간호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고, 특히 간호정보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간호학을 전공한 것은 굉장히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적부터 꿈이 선생님이어서 교대에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추천해주셔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간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간호정보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호학 교수가 되기 위하여 유학을 가서 간호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통계 수업에서 통계가 너무 재미있었고, 통계를 잘하려고 보니 컴퓨터를 다루게 되었고 또 컴퓨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 했고, 전산학과, 통계학과 과목을 들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답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점이 간호학과 달라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을 공부하러 왔기에 전산학을 하는 것보다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 중 보건의료 정보학이 있어



그 학문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학 석사를 졸업한 다음, 전공을 보건의료정보학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오면서부터 간호정보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통해 간호학 이외의 학문을 접하며 제가 정말 재밌어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제 커리어 시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세계간호정보학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세계의료정보학회 회장직까지 역임하셨는데, 의료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하실 수 있으셨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거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회에 갔을 때, 우리는 논문이나 포스터 발표를 하고, 듣고 싶은 세션들을 듣고 돌아오는데 저는 학회에 가면 갈라 디너 등 소셜 이벤트에 꼭 참석하여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들의 가족, 취미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이런 인연이 연구 주제가 비슷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협력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회 일도 많아 하다 보니 임원 자리를 맡게 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임원이 되어서는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 타인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 외교적인 역할을 좋아하고 잘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학회에서 회장직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공자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았고 학회에서의 외교적인 역할도 재밌다 보니 학회에서 하는 일도 재밌어지고 결국 회장직도 맡아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구와 교육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과 취미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해 내시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초등학교 때는 육상, 중고등학교에서는 배구를 했습니다. 탁구, 테니스 등도 정말 좋아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마라톤을 하고 기회가 되면 골프를 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정서적인 재충전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혼자 책을 읽으려면 쉽지 않기에 북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음악회나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교육 및 연구 못지않게 재충전 활동을 열심히 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굉장히 늦게까지 남아 교육 및 연구에 몰두하

고, 주말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잠을 덜 자는 편이라 그런 것 같고 잠을 덜 자는 것은 체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간호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거치면서 간호정보학의 대가가 되셨습니까?

보건의료정보학 전공 후 귀국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며 보건의료정보정책 연구를 했던 시절이 제 커리어 패스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업무 전산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도입 등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수행하였고, 진행한 연구의 결과가 바로 구현되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후, 좋은 기회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왔는데, 그 당시 간호대학에는 정보학 전공이 없어 성인 간호학 전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인 간호학 전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간호계에도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접목하고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정보학 보수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보수 교육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간호정보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간호정보학의 필요성도 알리고, 관련 교육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간호정보학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전공을 간호정보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에 간호정보학 전공이 개설된 이후, 의과대학, 치과대학, 공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정보협동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의 커리어 패스가 있고, 실무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처음 개원할 때 의료 정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하는 간호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도 간호정보학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표준 용어 활용 방안 연구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5.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다양한 학술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보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전공으로 삼을지 고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1992년 학교로 온 이후, 제 전공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바이오 인포매틱스가 주목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어서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께 해당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연구실에 올 수 있다고 하여 좌절했습니다. 바이오 인포매틱스가 아니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표준 용어인 SNOMED와 간호 용어 ICNP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전공을 정하고 이후 표준 용어 쪽 전문가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1년 의료정보학의 큰 학술지 창간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가 바이오 인포매틱스 연구를 하기 위해 컨택했던 스탠퍼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서로 옆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고 싶었는데, 거절한 분이 옆에 계시네요’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 당시 많



은 것을 이루고 잘 나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인정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 인정받게 되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용어 체계와 관련 있습니다. 용어 체계를 전공으로 하면서 20년 동안 용어 체계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언급되고 그러면서 표준 용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수년간 쓰임이 크게 없던 제 전공이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니 필요한 순간 표준 용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많아지고 정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당장 도움이 되는 일이나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을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6.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란 무엇인가요?

‘간호학은 과학이자 예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학이 더 중요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예술이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에서 과학은 바로 근거 기반의 간호입니다. 이때, 근거는 바로 데이터에서 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그 데이터는 바로 보석입니다. 우리는 축적된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하고, 이게 바로 Practice-based evidence입니다. 과거에는 연구하는 것이 evidence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우리의 실무현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세팅은 항상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컨트롤을 잘해야 하고, 컨트롤된 연구에서 나온 근거는 컨트롤 되지 않은 간호 실무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practice-based evidence를 마련하여 evidence-based practice를 수행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간호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예술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우리 학생들이 다 똑똑하지만, 자긍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존경받는 직업 조사 등에서 국제적으로 간호사가 상위 순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자신감의 근거는 타인이 나를 알아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사실 다른 학문에 간호학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호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간호학 학회에만 가지보다는 interdisciplinary 한 학회에 가서 간호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변 학문과도 교류하고, 간호학을 많이 알리는 역할을 우리 후배들뿐만 아니라 간호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체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체력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체력지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먼저 키우고, 윤리적으로 옳은 마인드를 가진 다음, 지식이 쌓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왜 지식이 필요한지 모르고, 지식을 활용할 기운이 없게 됩니다. 또한 체육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지를 갖춘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문의 사람들과 많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다면 환자 데이터를 원격 수집하는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간호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 개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임상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싶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간호대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변 관련 학문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른 연구자들과의 공통점을 찾아 스스로 기여할 부분을 찾고, 본인의 영역도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간호대학 소식 03

연구실 탐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보건간호통계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보건간호통계연구실은 허익수 교수님과 보건간호 통계학 전공 학생들이 모인 연구실입니다. 허익수 교수님의 관심 연구영역은 유전역학, 후성유전학으로, 생물학과 유전학을 기반으로 질병에 연관된 요인을 찾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 오셨으며 현재는 보건과 간호 및 의료영역의 자료분석으로 관심영역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연구실 소속의 대학원생들은 통계학 전공자이신 허익수 교수님 아래에서 다양한 통계 기법과 통계 프로그램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R 프로그램을 다루어 자료분석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회귀분석이나 다변량 분석 등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머신 러닝 등 최신의 통계 기법까지도 연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간호통계 연구실에서 최근까지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활동 수준이 암 생존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Heatmap을 활용하여 암 생존자의 특성과 신체활동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데이터저장소(CDW)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집락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또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통계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간호대학 교수님들의 국책 과제나 연구와 관련해 통계적으로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보건간호통계 연구실에서는 매주 1회 정도 주별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모임에서는 통계분석 기법이 적용된 다양한 논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진행중인 연구를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통계적, 간호학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관련하여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4

2022학년도 제 6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22년 4월 26일(화),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 3학년 59명 학생들을 격려하는 제 6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란 간호대학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이다.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거행되지 못하여 이번 행사는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간호대학 외부인사를 모시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3학년 학생이 참석하여 학장님께 촛불을 이어받았으며, 학생들이 다같이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였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님은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

회 허영 동창회장님과 서울대학교병원 이경이 간호본부장께서는 직접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위한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5

2022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2022년 5월 26일(목) 간호대학 학부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으나, 올해에는 간호대학 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어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4학년 학생들은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총 2학기(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발표회는 윤주영 학생부학장의 심사위원 소개 및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심사위원은 김현의 간호과학연구소장 겸 간호연구실습 과목 지도교수, 조성현 교무부학장, 강자현 교수가 맡았다. 발표는 총 6팀이 각각 15분씩 실시하였으며,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연구에 대한 심사 총평과 함께 시상식 및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발표가 우수하였으나 최종 대상에는 “S대 간호대학생의 수술가운 안쪽면과 바깥쪽면 색상구분 여부에 따른 탈의 과정 중 자기신체 오염발생 비교연구(김여진 외 9명)”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으로는 “동료 교수 학습법을 적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이 S대 간호대학생의 학습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수행 자신감 및 술기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 교수자, 학습자, 비적용군 비교를 중심으로(이서영 외 10명)”와 “임상 진출 가능성이 있는 S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환자 케이스에 대한



비대면 전문직 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전문직 간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한도희 외 10명)”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보고경험을 적용한 SBAR 교육이 S대 간호대학 학생의 의사소통 자신감, 의사소통 명확성에 미치는 효과(김수민 외 9명)”, “대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여부에 따른 건강신념과 코로나19 감염예방행위의 차이(반세진 외 9명)”,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장민수 외 9명)”가 선정되었다.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를 통해 학부생들의 간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장기화 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현장 자료 수집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등의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대면 회의 플랫폼과 설문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올해에도 놀라운 연구 성과를 이뤄낸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간호대학 소식 06

2022학년도 교수-학생 간담회

코로나19의 완화 추세에 힘입어 2022년 5월 19일(목) 교수회의실에서 대면으로 교수·학생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장단과 학생회, 학년대표, 행정실, 조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혜원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학생회와 학교가 차례로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후로는 학생 건의사항 및 학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학생 측 질의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확진자 발생에도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수업 및 편의를 여러 방면으로 보장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수·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쓸 것을 약속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7

2022년 하계교수 WORKSHOP

2022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이 6월 20일(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층 교수회의실에서 ‘연구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간호대학 교수 19인과 조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원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관악캠퍼스 설계안 보고, 간호대학 연구역량 현황 및 발전전략, 간호대학 인사세칙 및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연구역량 현황 및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간호대학 SCI급 논문 투고 추세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전한 저널 모색 및 H-index를 높이기 위한 전략 개발, 간호대학 인사세칙 및 연구업적평가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4주기 간호대학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인증영역 별 담당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간호대학 교육철학,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개정, 실습관련 인건 교육,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열띤 논의 후 마무리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교수들의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4주기 간호대학 인증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 소식 08

2022년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간호대학에서 주최하는 2022년도 하계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2022년 8월 1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이번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과 같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연수로 진행되었다.

강원, 인천, 대구, 제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번 연수교육에 참여한 보건교사 82명은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1주간의 교양·교직과정과 간호대학에서 주관하는 2주간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82명의 보건교사 모두 최종 평가에 합격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편성된 이번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실제 보건실 운영과 보건수업에 관한 학교 보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와 함께, 팬데믹 속에서의 새로운 온라인 보건 수업 기법이나 참여 협력형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강의, 그리고 통상질환 관리나 보건실에서 흔히 쓰는 약물, 소아 당뇨의 상담 및 관리,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대처 등 실무 지식과 관련된 강의가 포함되었다. 학생의 정신건강 관리나 교사의 자존감에 관한 강의와 더불어, 미국 학교에서의 건강문제와 건강관리, 보건교육의 역사와 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강의 등 최신 보건 교육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사범대 연수원에서 진행된 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간호대에서 진행된 전공 과정의 전반적인 연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없이 원활한 진행으로 연수 참여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육연수원과 간호대학의 노력으로 진행된 이번 보건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보건교사들은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보건교사들은 1급 보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아 보건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축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건교육에 힘을 쏟기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09

2022 간호학캠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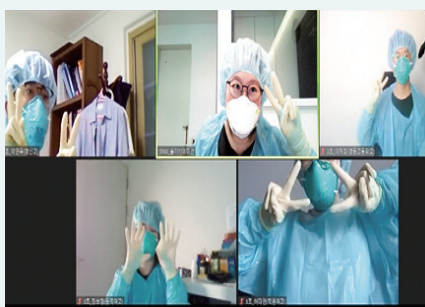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1일(목), 12일(금) 이틀에 걸쳐 2022 간호학캠프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간호학문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교생들에게 제공하여 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진로 탐색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2 간호학캠프를 통해 고교생들이 간호학의 철학과 가치를 탐구하고, 간호학문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학습하며, 간호학에 대한 진로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2022 간호학캠프는 김혜원 학장의 환영사로 개회한 후, 윤주영 학생부 학장의 간호학 캠프 소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간호학 입문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을 주제로 한 고진강 학과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간호대학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간호대학 투어 및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의 사인센터와 간호학박물관 대한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간호에 대한 게임 또는 퀴즈를 진행하고 간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 해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활동 사이 쉬는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을 시청하며,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간호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On-tact 투어를 할 수 있었다.

간호학과 캠프인 만큼 직접 간호술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보호장구 착용', '상처드레싱', 그리고 '수액연결 및 3-way 조작'을 실습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간호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고,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만족하며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대한 윤주영 학생부학장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단체사진 촬영과 만족도 조사를 끝으로 간호학 캠프는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특강 및 실습이 기대 이상으로 값지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대다수였다. 2022 간호학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간호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보호장구 착용〉



〈상처 드레싱〉



〈수액 연결 및 3-way 연결〉

간호대학 소식 1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22년 8월 24일(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에 우리 대학에서는 김혜원 학장, 조성현 교무부학장, 고진강 학과장 외 6인의 교수진과 조교 4인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에서는 이경이 간호본부장, 정은희 간호행정교육팀장, 심원희 내과간호과장, 김미형 수술간호과장, 안태사 암간호과장, 이상림 응급간호팀장, 권희경 간호교육파트장과 간호교육파트 간호사 2인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 2022학년도 상반기 인사, 행사 및 활동, 그리고 2022학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양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서면보고 하였다. 더불어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병원 취업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1

제 76회 후기 학위수여식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 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 총 2,700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받았다.

지난 제 73회 후기 학위수여식(2019년 8월)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지난 졸업생(2020년 8월~2022년 2월, 2020년 2월 미개최)도 초청되었다. 이날 행사에 5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참석 신청을 하였다.

올해 한국계 수학자 중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프린스턴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사 및 수리과학부 석사)가 축하 연사로 초청되어 후배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또한 허준이 교수가 '제3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어 학위수여식 행사 중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서울대는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되어 졸업하지 못한 7명의 민주화 열사(김태훈 경제학과 78학번, 김학묵 사회학과 78학번, 박혜정 국문학과 83학번, 송종호 서어서문학과 87학번, 이동수 원예학과 83학번, 이진래 제약학과 79학번, 황정하 토목공학과 80학번)를 명예졸업자로 선정하고, 이날 유가족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전달하였다.

오세정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코로나19 시대는 인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에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새로운 세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담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간호대학은 학사 14명, 석사 15명, 박사 9명도 합 38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리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간호대학 소식 12

2022년 제 2차 임상간호학과 운영위원회

2022년 제 2차 임상간호학과 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임상간호학과에서는 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2월,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와 병원 양측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간호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교류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김혜원 학장의 인사로 회의를 시작되었다. 이후, 2022학년도 1학기에 진행했던 논문 심사, 통계 특강 등 학과 행사와, 2학기 개설 교과목, 세미나 및 논문 심사 일정, 내년 입학 전형 일정 등을 운영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간호사 실습 교육의 발전 방향과, 임상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전문간호사로서의 인적 자원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 속에서, 전

문간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운영 위원들은 병원 내에 전문간호사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임상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 이후 전문간호사로서 상급간호실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1년 입학한 서울대학교 임상간호학과 1기 학생들이 현재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고 있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중환자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병원 현장에서 전문간호를 실현하며, 실무와 연구 모두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13

환경개선

○ 제2연구동 수정체 데크 보수공사

일시 : 2022. 4. 18. ~ 5. 2

내용 : 제2연구동 수정체 주변 데크 철거 및 재시공



〈제2연구동 주변 데크 보수〉



〈제2연구동 주변 데크 보수〉

○ 본관 강의실(102, 103) 냉난방 리모컨 이설

일시 : 2022. 6. 13. ~ 6. 24.

내용 : 본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강의실용 냉난방 리모컨 이설 설치



〈본관 102호, 103호 냉난방 리모컨 이설〉

간호대학 소식 14

직원동정

○ 조교

〈2022. 7. 1.자〉 이예슬 조교 → 신루희 조교

임기 : 2022. 7. 1. ~ 2023. 6. 30.(1년)

○ 행정실

〈2022. 7. 1.자〉 전임 : 담당관 허상은 → 교학행정실

전출 : 담당관 박중호 → 사무국 재무과

○ 교학행정실 담당관 허상은 (2022. 7. 1 발령)

안녕하세요. 간호대학에서 교원인사 및 입시를 담당하게 된 허상은입니다. 저는 2013년 입사 이후 인사교육과, 미술대학, 학사과에서 교원인사 업무와 수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새로운 캠퍼스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첫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간호대학 구성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22년 1학기 수요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2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1학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22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개최되었다.

NO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3월 23일	일터의 페미니즘: 능력과 차별 사이	김현미 교수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	4월 13일	상징을 통한 자기이해	김수미 소장 (자기돌봄과 통합연구소)
3	5월 4일	AI와 젠더	최윤영 교수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2022년 1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2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접하고 간호 적용 가능성을 함께 토론허기 위해 주최하는 1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가 2022년 3월 16일부터 5월 25일 까지 개최되었다.

NO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3월 1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박성용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2	3월 3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사례	김재용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3	5월 25일	쇼팽의 로맨틱한 죽음	박종화 교수 (서울대학교 기악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22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 연구발표회

간호대학생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간호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제간 교류와 지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연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간 내 학술연구 활동 후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교내 연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2022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 연구발표회

- 일시 : 2022년 5월 26일 (수) 13:00~15:00
- 장소 : 간호대학교 제2연구동 2층 강당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25만원) 1팀, 최우수상(15만원) 2팀, 우수상(10만원) 3팀, 총 6팀에게 수여됨.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외국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 일시 : 2022년 6월 16일 (목) 12:00 ~ 13:15
- 장소 : 온라인(Zoom)

날짜	주제	연자(소속)
6월 16일	Current Status of Theory Evaluation in Nursing	Eun-Ok Im (Emory University)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학술정보 매거진 간호누리 발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문수준 제고하고자 간호누리 1호를 발간하였다.

○ 간호누리 발간

-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e-version 게시
(<https://rins.snu.ac.kr/magazine>)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2022년 2학기 수료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2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1학기 수료학술세미나가 2022년 9월 14일 부터 11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참여 방법은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NO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9월 14일	마음의 구조: 그림자	김수미 소장 (자기돌봄과 통합연구소)
2	9월 28일	Why nursing..What is nursing..?	최남희 소장 (서울내러티브 연구소)
3	11월 16일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영양상태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2022년 2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1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접하고 간호 적용 가능성을 함께 토론했기 위해 주최하는 2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가 2022년 11월 2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계획되어 있다. 참여 방법은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NO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11월 2일	Kernel-based Hierarchical Structural Component Models for Pathways Analysis	황보수연 진료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학과)
2	11월 9일	24 Hour Rest and Activity Rhythms in Aging Brain	문추자 교수 (University of Iowa)
3	11월 30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간호시장과 간호교육	장금성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8

2022년 2학기 국제학술대회 일정안내

간호학에서의 Translational nursing는 간호연구와 간호 실무를 연결시켜 환자 간호의 질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을 증진시키며, 효과적인 의료정책의 수립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Translational nursing의 최신 의미를 정의하고, 실제 임상간호에서의 적용, 간호 교육의 방향,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역할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간호연구, 간호교육, 간호실무가 함께 성장시킬 간호학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 2022년 2학기 제 14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 Translational Nursing:
"Bridging the gap between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 일시 : 2022년 10월 14일 8:30 ~ 17:00
- 장소 : 온라인(Zoom) 참여 주소는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공개
- 세부일정 :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https://rins.snu.ac.kr/activities/online-submit?mode=view&confidx=4>)

간호학 교육연수원 소식 01

2022년 간호학 교육연수원 하계 공개강좌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8월 16일부터 29일 중 총 5일간 대면과 온라인을 통한 ‘2022년 간호학 교육연수원 하계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학 개론, 중환자간호학, 간호정보학 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종합 실기시험의 개발과정을 포함하여 교수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간호학 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nursing.s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시	교육 주제	강사(소속)
A	8월 16일(화) 8월 29일(월)	학부 중환자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용 인공호흡기 활용	김하나 교육전담간호사(서울대학교 병원) 장선주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B	8월 17일(수)	학부생의 최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정보학 교육	김현의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C	8월 18일(목)	학부 간호학 개론 수업에서 간호이론 쉽게 가르치기	고진강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D	8월 19일(금)	학부 종합실기시험 모듈 개발 및 적용	윤주영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이미정 수간호사(서울대학교 병원) 강자현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1

2022년도 1학기 졸업대학원생 논문 발표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석사, 박사 또는 석·박통합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졸업대학원생 논문발표회를 2022년 4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발표내용
석윤희	간호학생 교육용 암생존자 건강증진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금희	스마트기기 과의존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에게 적용한 감정 코칭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이정은	만성 요통 노인의 우울 구조 모형
장소영	간호대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적용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2

2022년 1학기 BK21 4단계 대학원 혁신사업단 Global Visiting Fellow 해외연자 선발

서울대학교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본부에서 지원하는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Glob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학술세미나를 통해 대학원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	소속 기관	초청 기간	학술세미나 제목
Soyoung Suh	Dartmouth College, Department of History in association with the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Program	2022. 6. 23. -2022. 8. 22.	Stories Matter: Medicine and Healing in the Margins Gender and Health in East Asia, 1600-1900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3

2022년 1학기 해외연자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에서는 BK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자	Prof. Van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제목	COVID-19 Effects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AAPI Survey Study II (COMPASS II)
일시	2022년 7월 13일 (화) 10:00~11:00
장소	온라인(Zoom)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4

2022년도 2학기 간호과학연구소 -BK21 Four 공동 주최 세미나

2022학년도 2학기에는 간호과학연구소와 BK21 Four ‘미래간호인재 양성 사업단’ 공동 주최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5

2022년도 2학기 BK 지원대학원생 선발

2022학년도 2학기에는 30명이 BK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는 총 인원은 15명이다. 석사과정생 1명에게는 월 70만원, 박사과정생 7명에게는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 7명에게는 월 1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6

단장 교체 인사발령

서은영 교수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장으로 임명되었다.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07

2022년 I학기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대학원생 연합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거점 국립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박사, 또는 석·박통합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대학원생 연합 학술대회를 2022년 8월 18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순서
10:00-10:10 (10분)	인사말 (방경숙 단장)
10:10-11:00 (50분)	연자 특강 (서은영 교수) (간호학 질적연구 동향과 MAXQDA를 활용한 질적연구분석법)
11:00-11:20 (20분)	대학원생 연구발표 1 (실험 연구: 강원대 이승아 박사 학생)
11:20-11:40 (20분)	대학원생 연구발표 2 (실험 연구: 경상대 김경희 박사)
11:40-12:00 (20분)	대학원생 연구발표 3 (구조모형 연구: 충북대 채현이 박사)
12:00-12:20 (20분)	대학원생 연구발표 4 (도구개발 연구: 서울대 안정희 박사)
12:20-12:30 (10분)	질의응답
12:30-13:30 (60분)	점심 및 주제별 소그룹 토의 (현장 참석자)



학부 소식 01

학생회 이야기 - 제31대 학생회 이야기

1. '[자정]에게 물어봐' 오픈채팅방 개설

2021년 12월 1일,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궁금증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정〉에게 물어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학생회나 간호대학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거나, 학생회 활동 및 간호대학 내 활동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할 때, 혹은 익명을 빌려 상담이 필요할 때, 간호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들어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교재기부 사업

학생회 학술지원팀에서 2월부터 교재기부를 받아, 3월에 교재기부 사업의 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기부해주신 국가고시 교재 및 전공 교재를 신청자들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중고 책 교류를 통해 버려지는 교재를 최소화하고, 후배들은 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재기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학생회비로 이용되어 학생들을 위한 여러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

공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간호대학 학우들에게 주는 작은 응원 선물의 일환으로,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는 학기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1, 2, 4학년과 3학년의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간식사업을 진행하는 날짜를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간식은 비대면 강의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기프티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4. 스터디그룹 사업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간호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대면 혹은 비대면 (Zoom 이용) 스터디그룹을 개설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돕는 사업을 학생회 학술지원팀에서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특정 시간에 직접 만나거나 Zoom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여,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왔습니다. 그룹별로 함께 공부한 시간을 인증하여 일정 시간 이상 공부한 그룹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 '너의 이름은'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 3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간단한 필수미션을 익명의 상대에게 수행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로의 정체가 공개된 이후에는 대면 만남을 통해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동기 및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6. 메디컬 연합축제(SMUF)

2022년 5월 17일,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밭 및 풍산마당에서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이 연합하여 연합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학 관련 계열 전공 단과대들이 모여 다양한 부스 활동 및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7. 총 MT

2022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1~4학년 재학생 130명이 남양주시 힐링캠프펜션에서 총 MT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조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활동과 같은 학생 단합 행사를 통해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8. 입사자료DB화 사업

지난 8월,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입사전형에 대한 4학년 선배들의 경험담과 입사 준비 과정을 정리하여 재학생들에게 공유하여 재학생들의 입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작한 입사자료DB화 사업보고서는 간호대학 학생회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여, 재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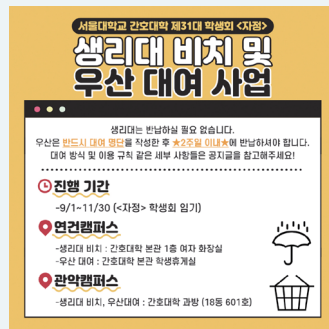
9. 집행부 LT

2022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빈방 서울대입구점에서 학생회 집행부원 23명이 모여 집행부 LT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 집행부원 간의 친목도모 및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회의 역할 및 업무를 설명하고 각 팀별로 2학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각 팀의 업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10. 물품대여사업

학기마다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 생리대 비치 및 우산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캠퍼스 과방과 연건캠퍼스 본관 1층 학생휴게실/여자화장실에 모두 비치하여 간호대학 학우분들이 자유롭게 우산을 대여하거나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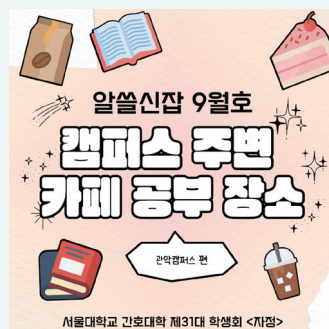


11. 2학기 개강총회

2022년 9월 2일, 푸타기 낙성대점에서 1-4학년 재학생 60명이 모여 2학기 개강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단 및 반장단 소개와 더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선후배 간 교류 및 친목 도모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2. 간호대학 알쓸신잡 사업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회 PR팀에서 매달 초에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간호대학 잡학사전 : 간호대학 알쓸신잡'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배포된 알쓸신잡 카드뉴스에서는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가질 만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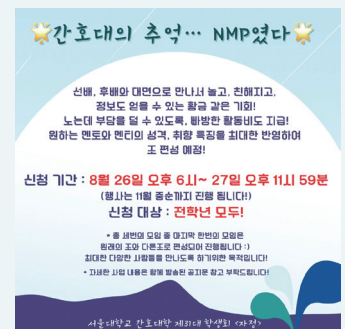
13. 2학기 과목OT 사업

이번 9월에 1-3학년을 대상으로 선배들에게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과목OT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전공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계획서에 더하여,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이미 겪어본 선배들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과목OT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OT 종료 후 이를 담당한 선배들이 만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4. NMP(Nursing Mentoring Program)

이번 9월부터 NMP를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위해 2-4학년 재학생이 멘토가 되어 1-2학년 재학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선후배 간 교류 및 친목 도모하였습니다.



15. 연건페스티벌워크(연건 대동제)

2022년 11월 11일(미정),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식사과정 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연건페스티벌워크를 연건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부스 활동 및 프로그램, 공연을 진행하는 등 세 단과대학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연건캠퍼스 학생자치를 도모하고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16. 제4회 간호인의 밤 및 진로로드맵 사업

2022년 11월 4일, 연건캠퍼스에서 제4회 간호인의 밤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졸업생 선배들의 직종 소개와 해당 직종을 선택한 이유, 취업 과정 등을 재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진로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재학생 대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학부 소식 02

동아리 탐방 - 다소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봉사동아리 다소니입니다. 다소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및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분들의 건강 및 건강 지식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소니의 주된 봉사활동으로는 '웃는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는손'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혈압 및 혈당 체크, 손발귀 관리,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해 건강지식 습득과 자귀생관리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정기봉사 프로그램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의 운영이 예전과 같지 않아 '웃는손' 프로그램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기 봉사로서 '온라인 다소니 교실'을 진행했었으며 현재는 '해피테이블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소니 교실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온라인으로라도 돕고자 실시한 교육 영상 제작 봉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영상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후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피테이블 봉사는 서울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복지관에 있는 2대의 치매예방게임테이블을 어르신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 안에는 카드 맞추기, 정원 꾸미기 등 어르신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설명해드리고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간단하지만 뿌듯한 봉사활동입니다.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이라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입 부원들을 대상으로 봉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다소니는 항상 즐겁게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호대 학우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다소니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1 - 졸업 수기



18학번 김민지

안녕하세요, 76회 후기 졸업생 18학번 김민지입니다. 평소에 뉴스레터를 즐겨봐 친구들에게 종종 뉴스레터에서 접한 소식을 전달해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기를 작성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졸업하며 과분하게도 최우등 졸업 포상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뉴스레터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 소회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봉사와 나눔에서 파생된 활동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1학년 1학기 언어교육원에서 버디로 활동하며 서울대학교 방문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한 경험에서 시작해, SNU in London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하면서도 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학내 보건진료소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 접수 담당 근로장학생, 장애학생도우미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심리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머리 대학생활문화원 산하 학생심리건강지원단에서 도리어 큰 위로를 받으며 활동했던 기억, 특히 졸업 학기에 학심레터 아이디어를 제안해 T/F 팀장으로서 html에 새롭게 도전하고 이를 통해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했던 경험은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직이수생에게는 필수인 교육봉사에서도 특수학급 등 간호학의 특색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봉사처를 선택하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라파엘나눔 홈리스 클리닉 봉사, 그리고 위의 모든 봉사를 경험하며 느낀 점을 담은 수기를 통해 학내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에서 수상하는 뜻깊은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이 연쇄작용처럼 본 수기에 다 담지 못한 여러 감사한 기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에서 배운 교훈들은 앞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하고, 간호대학의 교육을 겪으며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이 모든 활동에 더하여, 간호대학 생활 중 특히 기억나며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꿈꾸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 간호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그해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준비까지 함께하는 등의 경험들은,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였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취이고 이를 통해 저 역시도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한 지 2주가 지난 지금은 학부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아쉬움이 크기도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차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 다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9학기 동안 따뜻한 모습으로 함께해주신 동기들과 선후배 여러분, 교수님들, 간호대학의 여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2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후기 “서울대학교병원”



18학번 금수현

작년에 간호대학 뉴스레터에 실렸던 합격 수기를 읽으며 올해 채용 합격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는데, 마침내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이 글이 추후 서울대학교병원 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울대학교병원은 신입간호사 25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재작년 378명, 작년 284명에 이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채용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3차 실무면접, 4차 최종면접, 5차 신체검사로 매년 동일합니다.

1차 서류전형의 지원서 접수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0일이었습니다. 입사지원서에는 ①전공과목 5개 성적 ②공인영어시험 성적 ③경험 및 경력사항 ④자기소개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입사지원서 양식은 채용 공고 웹페이지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으므로, 미리 입사지원서를 조금씩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8개월 전부터 입사지원서를 미리 작성해 보며 제가 한 활동들과 인상 깊었던 경험을 경험사항이나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미리 고민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합격자들의 영어시험 성적대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다음 채용부터는 토익 930점 이상의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원서 최종 제출 전에는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차 필기시험은 6월 25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아동, 여성, 정신간호학과 간호관리학 전반에서 50문항이 출제되었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2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공부를 지난 겨울에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의 조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1차 합격을 전제로 필기시험 공부는 최대한 미리부터 많이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채용 합격에 있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출판사의 다수의 국가고시 문제집에서 유형과 내용을 다양하게 접해보며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3차 실무 면접(실무진 면접)은 7월 6일부터 8일, 4차 최종면접(경영진 면접)은 7월 19일부터 2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전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과 다음 전형일 간의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2차와 3차 전형의 합격을 가정하고 다음 3차와 4차 전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한 어조와 긍정적인 태도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인재상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명료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매일 연습한 결과 면접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채용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이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군중 속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것이 채용 합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밝은 웃음 잃지 않고, 험난한 채용 과정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3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후기 “삼성서울병원”



18학번 박조은

취업을 무사히 끝내고 졸업을 한 지금, 처음 취업을 준비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막막함과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고 병원의 채용인원수가 감소하여 취업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취업준비과정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총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중순(13일)에 타 병원들에 비해 일찍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의 시작은 서류 전형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지원서는 추후에 있을 면접 전형의 기초자료가 되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공인영어성적 등은 늦어도 3학년 겨울 방학 때까지 마무리 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학부생활 동안 자신이 노력을 기울인 활동이나 인상 깊었던 경험들과 그것에서 드러난 장점, 가치관, 배운 점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에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고, 이후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활동이나 경험들을 미리 기록해놓으면 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영어성적도 자기소개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취업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지원자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공인영어성적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익의 경우 900점 중반대 이상의 점수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에는 직무적성검사(GSAT)에 응시해야 합니다. GSAT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전형 결과 발표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무상식영역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전공과목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은 온라인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소 공부를 할 때 A4용지에 문제풀이를 하고, 온라인 모의고사를 응시해보며 온라인 시험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입니다. 면접 전형은 면접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 면접 태도를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면접에 임할 때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큰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취업 과정의 각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취업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소식 01

2022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5명)

이미라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지각된 프리셉터 임상교육행동이 전환충격에 미치는 영향
정홍주	건강 정보 유튜브 비디오 질 평가를 위한 척도 분석-항암화학 요법 자가간호를 중심으로
최지영	여성 암 생존자의 동료 멘토링 제공 경험
장유선	일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의 신념, 간호전문직관 및 공감만족과 COVID-19환자 간호의도의 관계
현상민	아동간호단위와 성인간호단위의 간호사-간호사 및 간호사-의사 협력 비교
정운선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장애와 임종간호 수행
박주미	심장이식 수혜자들의 급성기 이후 자가간호 불이행
남궁송희	간 이식 병동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 실태
림	The Mediating Role of Religious Health Fatalism and Modes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ligiosity and Mammography Screening Behavior among Saudi Women
최해주	마취회복실 간호사의 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간호 활동에 미치는 영향
남연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수술환자의 간호서비스의 질 및 자가간호역량 비교연구
김혜문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영향요인
박소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오은지	Factors related to medication adherence patterns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high-risk comorbidities
김찬미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박사(9명)

홍정희	일개 상급종합병원 성인입원환자의 2017-2021년 간호중증도 변화 분석: 혼합연구방법론 적용
온정아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예측모델의 개발 및 평가
이상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응급실 복통환자의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
임준서	소셜 로봇을 활용한 인지증대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외로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안정희	유방암 여성의 신체 수용 척도 개발
이효진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멀티모달 접근방법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황지혜	복잡 선천성 심장병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성인이행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권현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인지하는 적정배치수준과 실제배치수준의 격차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경희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안전 위험(Nurses' Perceived Risk for Nursing Safety) 측정도구 개발

대학원 소식 02

수상실적 및 지원금

지원금	수여자	전공
한마음 장학생	양수지	지역사회간호학 석사과정
	배소영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정혜미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박유진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김희정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박주희	임상간호학과 중환자전문과정
	김가혜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박소현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한국노년학회 거손장학금	김희정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한나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간호과학연구소 2022년 학술모임지원	신지혜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강경아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안중근, 신소연, 이지현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임은영, 박혜련, 박혜원	지역사회간호, 간호시스템 전공
	조보슬, 김진솔, 김정하	지역사회간호, 간호시스템 전공
	정진선, 이형복, 이지연	지역사회간호, 간호시스템 전공
	김은조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강경아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수상 실적	수여자	전공
2022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김은주	지역사회간호학 박사졸업

대학원 소식 03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22 상반기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광주보건대학교	고정연	간호관리학	인하대학교	정혜실	성인간호학
Auburn University	사공혜	간호학	창원대학교	김찬희	기본간호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이준아	간호학	한림성심대학교	남수현	기본간호학
선문대학교	이정은	노인간호학	Emory University	이혜림	간호학(researcher)

대학원 소식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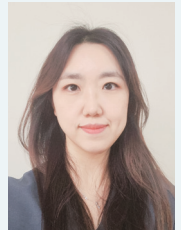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5 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Conference (EAFONS) (2022.04.21.~22.)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coordinator (구두 발표)	박한나, 윤주영, 장숙량, 남혜진
Educational Needs in the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Training Program for Visiting Nurses in South Korea (포스터 발표)	김은주, 김효리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Nursing and Allied Professions (ACNAP) – EuroHeartCare Congress 2022 (2022.05.22. ~ 05.23.)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comorbidity, the number of comorbidity is associated with the pattern of their medication adherence (포스터 발표)	오은지, 이경숙
International Psycho-oncology Society, 2022 World Congress	
Factors associated with fear of cancer recurrence among Korean gynecological cancer survivors (포스터 발표)	Sanga Park, Chae Weon Chung
Sigma's 33 rd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2022.07.21.~25.)	
Community Health Nurs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Consequences, Challenges, and Directions (포스터 발표)	김은주, 윤주영, 김효리
The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living with others versus alone (포스터 발표)	김다은, 김은주
Factor influencing Human Papilloma virus vaccination of women with inflammatory disease in Korea (포스터 발표)	이영진, 김혜원
Scoping review of comorbidities in heart failure: How to and what to measure (포스터 발표)	이지향, 오은지, 박다인, 남규미, 이경숙
A National Survey of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d by Community Mental Health Workers	신소연, 우소현, 최희승
SHEA Spring 2022	
Experiences of Nurses Responding to the COVID-19 Outbreak at a Long-term Care Hospital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김은조
UCLA SON research days: Building and Sustaining a Research Career.	
Self-care for Korean Immigrants with Chronic Disease: Concept analysis	김은조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①



모성간호학 박사 수료생 김주희

안녕하세요? 모성 간호학 박사 수료생 김주희입니다.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모성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던 시절, 산모들이 ECMO(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위해 MICU의 격리실에 입원하여 분만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전공과 밀접한 산부인과 파트로 이동을 신청하였지만,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어렵다고 했던 그 시절,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도 긴 어둠의 터널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석사 과정시 지도교수님이 컨퍼런스를 통해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공부 중 임신과 출산을 해서 힘들었는데, 격려와 지지도 듬뿍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기들, 선배들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기에 박사과정의 끝자락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부서 이동 신청 5년 만에 기적적으로 분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22년, 약 15년간의 임상간호사에서 강의와 실습 강사로 도약한 해입니다. 새로운 일로 정신없고 벅차긴 하지만 매일 가슴이 두근거리며(여러 의미로) 눈을 뜹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오는 길 자체가 저에게는 설렘이었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은 에티오피아 보건 사업을 진행하던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약 10일간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수업을 진행했던 일, 첫 영어 프레젠테이션, 첫 논문을 완성했던 일, 저널에 투고하는 과정 등으로, 처음으로 도전했던 일들이 많았고, 그 일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하게 해준 대학원 생활, 그 속에 만난 인연들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②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상간호학과 중환자 전문과정 박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임상간호학과 학생대표이자 중환자 전문과정 4학기생 박주희입니다. 우선, 뉴스레터라는 소중한 공간을 통해 중환자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과 느낀 점을 동기 및 선·후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생 때 다녀온 미국 해외연수를 계기로 전문간호사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된 후 임상 경력이 쌓일수록 중환자 간호의 최신 지견, 상급 간호 실무, 근거 기반의 간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열심히 준비하여 2021년도 3월에 입학한 뒤 지금까지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보니 입학 후 과목대표와 학생대표를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처음 보는 동기들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첫 학기를 힘차게 출발하였고 4학기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엔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고, 지난 3학기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서 ‘그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조금은 더 성장하였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및 과제를 준비하면서 온전히 내 것이 되었고, 발표 후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주고받은 피드백으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교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양한 연구 결과를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임상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서로 실습을 다니면서 분야별로 전문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특히 연구역량을 갖추어 근거 기반 간호를 수행하고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석사 학위 논문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학기에 접어든 지금은 석사 학위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여 멋지게 졸업할 수 있을지,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전문간호사로서

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 등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임상간호학과 1기 졸업생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주어지는 기회들을 멋지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당장 보이지 않는 길에 멈추어 서 있지 않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려 많이 부족한 지도학생을 열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장선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학기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기들에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었어요. 정말 고맙고 다가오는 논문자격시험, 학위논문 계획서/요지 발표, 전문간호사 자격증 시험합격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해내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학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힘쓰는 연구자이면서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소식 01

동창회 정기총회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4시에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식은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된에 따라 간호대학 강당에서 대면회의로 진행하였다.

1부는 허영 동창회장의 개회사로 2년만에 동문들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면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반가움과 환영 인사로 시작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김혜원 학장의 축사에서는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애쓰고 있는 간호현장 동문들을 격려하며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22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과 신입회원 대표로 동창회 장상을 수여한 이진아(22년졸업)동문의 대표인사가 있었다. 2부는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의 2021년도 회계와 사업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보고에 대한 의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석 동문들의 근황등 소식을 나누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동창회 소식 02

동창회교육연구재단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교육연구재단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1,330만원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19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내역〉

장학금명	과정	성명	장학금액
최애옥(50졸)	학사	구현준	100만원
동창회 장학금	학사	함시은	90만원
김기주(70졸)	학사	김원영	60만원
신정희(79졸)	학사	이소혜	60만원
57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학사	손주혜	40만원
강신자(63졸)	학사	김태현	40만원
임영숙(70졸)	학사	김지연	60만원
허영(74졸)	학사	조설빈	200만원
이광자(68졸)	학사	반세진	100만원
허영(74졸)	학사	장민수	200만원
이윤경(69졸)	석사	김지영	70만원
김현희(63졸)	석사	김보혜	100만원
이정자(63졸)	석사	임도연	40만원
이선옥(73졸)	석사	배미진	40만원
이귀향 장학금	박사	김예송	40만원
이애주(69졸)	박사	우소현	40만원
김남련(56졸)	박사	최혜인	50만원
84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박사	강경아	100만원
임난영(71졸)	박사	임은영	100만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22년 3월 1일~2022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72년졸업생일동	간호대82년졸업생일동	간호대92년졸업생일동	남궁경(71졸)
이화숙(71졸)	박인희(71졸)	표양순(71졸)	김명숙(71졸)
이명희(71졸)	맹옥열(72졸)	이영신(81졸)	서영숙(71졸)
최영옥(71졸)	최병주(71졸)	홍명희(71졸)	정춘임(71졸)
정기순(71졸)	남순영(71졸)	문지현(91졸)	이아라(71졸)
김달숙(74졸)	임소영(91졸)	임진애(71졸)	백남향(71졸)
현상옥(71졸)	박연환 교수(91졸)	김연숙(91졸)	최지미(02졸)
유희선(05졸)			
기타			
디케이메디인포	케녹스사운드	이지영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간호대학은 2026년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립을 목표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 * 농협 079-17-000136 서울대발전기금
- * 신한 100-014-328209 서울대발전기금
- * 우리 1006-601-280134 서울대발전기금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간호대학은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학제-융합 간호연구 및 공공간호 복지아젠다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내실있는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건립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